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단속 집중 추진

도, 수질오염·악취발생 예방·상수원 보호 등 위한 특별점검 강화... 축산농가·수집운반업체 등 교육 환경오염예방 의식 제고

전북도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관리대상은 새만금유역 외 지역인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으로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대상시설은 총 5,766개소로 배출시설 5,693개소, 재활용신고업체 49개소, 수집운반업 17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가 해당된다.

우선,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대규모 사육이나 상습민원 유발 시설, 무허가 축사, 또는 주요 하천에 인접한 시설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도와 시·군, 전북자치환경청과 공조해 오는 3월부터 분기별 합동점검과 잠마찰,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류수 처리시설 및 악취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수집운반업체 등이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제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기술관리인 대상으로 인허가 사항, 시설 관리, 관련법령 등에 대해 맞춤형 실무교육 실시로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수집운반업체는 차량단말기 적정관

리, 인계인수서 작성 등 시·군 순회 교육을 실시해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시와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지킴이 등 순찰체계를 강화하는 등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회속도 환경복지국장은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가축분뇨 적정관리와 더불어, 축산농가나 관련업체의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한 관리강화와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병행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무료 희망법률상담 ‘인기’

매월 4회 첫째·셋째주 수요일 주간, 둘째·넷째주 목요일 야간 운영 비대면 상담 전환 후 작년 희망법률 상담건수 243건... 시간 절약이 장점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희망법률상담실이 도민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가사 등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 고충을 전문가

인 변호사들에게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주 1회 운영하며, 매월 첫째·셋째 주는 수요일 주간,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야간에

운영되며, 상담 시간은 1인당 30분 가량 상담을 할 수 있다.

전북도 무료희망법률상담은 지난 2013년부터 방문상담,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으로 운영해 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 안전 및 확산방지 차원에서 2020년 3월부터 비대면(전화·사이버)으로 전환해 운영해 오고 있다.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 후에도 2021년 희망법률 상담건수가 243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희망법률상담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비대면전환으로 인해 상담실

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채권채무 등 민사상담 153건, 혼인 및 상속 등 가사상담 50건, 형사 및 행정 사건 40건으로 집계됐다.

도민들이 희망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063-280-2847) 또는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연계, 전화 및 사이버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강화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 활용한 위반사항 신고 등

전북도와 전북도편의시설처도민족진단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 방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제도 차원의 홍보에 주력했지만 불법 주차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올해는 적발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분 간격으로 불법주차 및 주차 방해 관련 사진 2장을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를

하면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는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앞·뒤 및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장애인 전용 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확립돼 교통약자들의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시고, 주·정차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임실군 12개 읍·면 지역에서 마을자치혁신운동을 하고 있는 마을자치혁신활동가 24명은 임실군에서 90%이상 당선을 위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지지 선언 및 출정식을 가졌다.

“자치 앞으로, 분권 제대로”

임실 마을자치 혁신활동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임실군 12개 읍·면 지역에서 마을자치혁신운동을 하고 있는 마을자치혁신활동가 24명은 임실군에서 90% 이상 당선을 위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지지 선언 및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지지 선언 및 출정식에는 자치분권 마을자치혁신 임실본부 마을자치혁신활동가 신승철(임실공동본부장 상임대표), 김정용, 김영부, 김종규, 정영삼, 김순자, 장현우 공동본부장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함께 행복해지는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사회

혁신, 기본권이 보장되는 마을 정책을 함께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선거기간 임실군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90% 당선을 위한 순회 당선 운동을 시작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농어촌에 직면한 고통과 및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주민주권 실현이다”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오철기 전북시민포럼 공동대표, 남원시장 예비후보 등록

오철기 전북시민포럼 공동대표가 21일 남원시장 예비후보에 무소속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출마의 변으로 오 예비후보는 “남원을 살릴 디지털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최우선 과제로 “남원-임실-순창 경제통합으로 남원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지금의 시대는 메타버스로 가는 길목에 있다. 중앙정부는 이미 정부기관 주도로 디지털 관련 기업과 메타버스동맹을 체결하고,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된다. 잘 모르는 분야라고 애써 외면하는 자는 이 시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며 디지털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발전전략에 맞서 남원도 인근 자치단체와 연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임실, 순창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생발전 을 꾀하는 유일한 방법이 남원-임실-순창 경제통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철기 박사는 전북대총동문회 부회장과 (사)전북시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26일 출판기념 사인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정읍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이 출판기념회를 연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조합장은 자전적 이야기와 정읍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쓴 책 ‘이제 시민이 꽃피울 때’에 대한 출판기념 저자사인회를 오는 28일 연 지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제 시민이 꽃피울 때’는 김민영 조합장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 18년간의 산림조합 운영, 지역공헌 활동 삶의 시련 등 개인사적 이야기와

정읍시장 출마예정자로서 갖고 있는 정읍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을 엮은 책이다.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56년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시민과 정읍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그동안 받았던 시민의 사랑을 시민께 되돌려, 시민이 꽃피우는 정읍을 위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출간 소회를 전했다.

한편, 저자사인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친화 일자리 참여 청년 모집

만39세 이하 도내청년 120명 대상,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 3월 11일까지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접수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3월 11일까지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친화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친화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해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50개 기업과 청년 120명이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별강의를 실시한다.

또한, 도내 청년친화기업의 기업정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 설명회, 기업탐방 등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청년 일자리 대표메일(work-young@jbba.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분야별 평가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기업 50개를 선정한 바 있다.

참여하는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업 컨설팅을 지원해 도내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3월 중순까지 참여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탐방 등 본격 사업에 돌입 예정이다.

신청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063-280-4130~36으로 하면 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청년들과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친화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시민 모두가 시장인 전주’

조지훈 전 경진원장 정책제안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공약을 만들기 위해 ‘전주나까 정책제안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저서 ‘전주나까, 조지훈의 후속 프로젝트’, 책을 통해 전 전주사람으로서 평소 소신과 비전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전주나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전주나까 정책제안 프로젝트는 포털사이트 ‘joon.com’을 통해 진행된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전주나까 정책제안에 남겨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 공약에 반영하고 소통의 폭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 전주나까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정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에서 정책 카드에 이어 ‘정책



공약집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한환 선대위 정책본부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그렇기에 선거의 기준은 정책 역량이 패어만 한다”며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정책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생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깊이는 얼마나 현장을 알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앞으로 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혼자자 아닌 시민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 의견 들어 정책화”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백선토론’ 연달아 열어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5일부터 각계각층의 전주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백선토론’을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15일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을 시작으로 18일 동네책방 대표, 17일 마을강사 및 경력단절 여성, 18일 마을정원사 등 일반시민과 ‘백선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전주에 머물 수 있도록 주거, 취업, 교통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대학과 기업연계 지원책 시행, 대학생 버스요금 인하방안 등을 약속했다.

동네책방 대표들은 공공부문에서의 안정적 구매, 작은도서관과 동네책방 상생방안, 전주천·삼천에 북카페 차량 설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대해 우 출마예정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네책방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력단절여성 및 마을강사분들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연계 마을강사 양



성, 마을 커뮤니티 공유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공여와 일반시민을 묶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또한 최소 5년간은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마을정원사분들은 전주의 정원문화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전문적인 인력, 체계화된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숲처럼 공원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하여 전문적인 일자리를 탄생시키고 공원의 전문적인 관리화로 마을주민들에게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정원관광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